# 일상 속으로 들어온 '문학나눔'

## 문체부 · 출판진흥원, 전국 곳곳서 작가 행사 개최… 신진작가 34인 참여 북토크로 첫 출발

문학이 도서관과 문학관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이 주관하는 '2026 문학나눔 작가 행사'가 '한 문장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은 우수한 문학도서를 선정·보급해 문학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설과 시, 그림책, 청소년 문학, 희곡, 평론 등 6개 분야에서 346종의 문학도서가 선정돼 독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작가 행사는 2026년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작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행사의 첫 프로그램은 2026년 문학나눔 선정작으로 첫 책을 출간한 신진작가 34인이 참여하는 북토크다.

작가가 자신의 첫 책을 소개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런 책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오는 8월 11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장르별 작가 2~4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북토크는 기존의 도서관이나 문학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독자들의 일상과 가까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산 자락의 '더숲아카데미하우스'를 비롯해 신동엽 시인이 헌책방을 운영했던 기억을 품은 성북천의 '카페 위사',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마하 한남', 영천시장 길목의 '브루어리304', 남산한옥마을 인근의 '카페 왈라' 등이 행사 장소로 활용된다.

편안하고 친숙한 일상 공간에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학을 보다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작가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에는 기성 작가들이 참여하는 북토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과 문학관 등에서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팝업 행사와 1박 2일 문학 캠프, 온·오프라인 전국 북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특정한 문화시설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고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가 '2026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NOL 국내 축제 지수)'에서 전국 1,452개 축제 가운데 매력도 부문 1위,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 '춘향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경쟁력 입증

## 남원시,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서 매력도 부문 1위 · 종합순위 3위 기록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가 '2026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NOL 국내 축제 지수)'에서 전국 1,452개 축제 가운데 매력도 부문 1위,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야놀자리서치와 미국 퍼듀대학교 CHRIBA 연구소, 경희대학교 H&T애널리틱스센터가 공동으로 수행,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X, 온라인 커뮤니티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성 뉴스는 제외했다.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는 축제의 유명세나 방문객 규모가 아닌 실제 축제를 경험한 소비자의 반응과 만족도를 반영한 실증 지표로, AI 트랜스포머 기반 감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언급량을 측정한 '인지도'와 긍정·부정 감성 비율을 분석한 '매력도'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최종 지수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환산했다.

춘향제는 매력도 부문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해, 서울 세계 불꽃축제와 진해군항제에 이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며 국내 축제 최상위권인 '1st Tier'에 포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음악으로 물드는 전주의 여름'

##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14~16일 개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주 대표 여름 음악축제인 2026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하 JUMF)이 전주문화방송(주)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후원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JUMF는 K-밴드와 인디 음악, 록, 메탈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국내 주요 뮤지션부터 개성 넘치는 밴드, 해외 아티스트까지 함께해 음악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개막일인 14일에는 K-밴드와 인디 음악부터 대중음악, 일본 록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으로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첫날 공연에는 △10CM △페퍼톤스 △로맨틱펀치 △숀 △QWER, 일본 유명 록밴드 △FLOW 등이 출연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자우림 △NELL △국카스텐 △블랙홀 △리도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려한 록 사운드를 선보이며, △송소희 등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가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YB △김광진 △Sable Hills △IDIOTAPE △Knosis △너드커넥션 등이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음악부터 강렬한 록과 메탈코어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이며, 올해 JUMF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JUMF는 △스탠딩존 △피크닉존 △캠핑존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열정적인 뮤직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또, 폭염에 대비해 △물놀이장 △쿨링 수소버스 △무대 앞 대형 워터건 등도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13일 전주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경찰서, 완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전주안전관리자문단 건축위원 등과 함께 시설물·전기·소방·교통·질서·폭염관리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축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 전시 '술이 흐르는 길'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획전시 '술이 흐르는 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술'을 주제로 기획됐다. 집집마다 술을 빚던 가양주 문화부터 일제강점기의 주세정책과 양조업의 변화, 광복 이후 달라진 술, 그리고 오늘날 군산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지역의 술까지 우리 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집집마다 피어난 술의 향기'에서는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제례와 잔치,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집집마다 술을 빚었던 전통적인 가양주 문화를 소개한다.

2부 '끊어진 술의 길, 제도 안에 갇힌 술'에서는 개항 이후 외국의 술이 유입과 일제강점기 주세령의 시행이 가져온 변화를 다룬다.

3부 '결핍의 시대, 달라진 재료'에서는 광복 이후 식량 부족과 양곡정책으로 술의 원료가 변화했던 시기를 다룬다.

4부 '다시 지역을 잇는 술'에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군산의 술을 소개한다. 군산 막걸리를 비롯해 군산 보리와 맥아를 활용한 수제맥주 등 지역의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조장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술의 길'을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관람객이 술을 빚고 나오는 술지게미의 향을 직접 맡아보고 감상을 적어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전주 메이드' 장편영화 '빈집의 연인들' 개봉

전주시 영화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한 장편독립영화 '빈집의 연인들'이 12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영화 '빈집의 연인들'은 전주영화학교 장편 시나리오 기획 개발 작품으로 시작돼 전북 장편영화 제작지원, 전주영화제작소 후반제작 지원, 전주영상위원회 마케팅 지원과 시사회 유치를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태휘 감독은 전주영화학교 2기 수료생으로, 전주시 영화지원 체계 속에서 작품을 발전시켜 전국 극장 개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영화는 전북특별자치도 올로케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총 13회차 촬영을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곳곳의 풍경과 지역의 정서를 오롯이 담아냈다.

특히 전주에서 영화를 배우고 전주의 지원을 받아 전주를 중심으로 제작된 '전주 메이드' 장편영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 기자